



# 祖國의 꿈을 키우는 韓國科學院

院長 朴 達 祚

韓國科學院의 主目的은 오늘날의 國際産業경제社會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효율적인 研究開發을 수행할 수 있는 産業界와 學界의 人材를 養成하여 이 結함을 匡正하는 데 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科學技術은 확고하게 土着化 될 것이다. 나아가 科學院은 産業現場經驗이 있는 科學者에게 계속 敎育을 실시하여 그들이 나날이 당면하고 있는 急激한 技術의 노화 現象을 止향함에 기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目的이다.

美國은 지난 55年동안, 日本과 소련은 지난 15~20年 동안 그들의 研究開發은 고도로 전문化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生産 위주 였다.

누구나 이와 같은 국제조류를 통찰할때, 技術의 革新과 창의 력의 發展을 지향하는 韓國科學院과 같은 精深한 敎育研究기관 的 重要性和 必要性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. 요컨대 이러한 일들이 科學院의 使命이다.

韓國의 科學을 위해 KIST, KAIS 等 科學團地內의 5個기관을 탄생시킨 朴正熙大統領의 용단은 높이 評價해야 할 줄 안다.

이번 10月 維新의 特記할 事項으로는 議會構成이 韓國實情에 맞춘 특수성을 들 수 있고 大統領 任期를 6年으로 한 點은 尙당 히 合理的인 것으로 본다.

그리고 요즘 요원의 불길처럼 全國에 일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全國民에게 자부심과 즐거움을 불러 일으키는 일로서 民族運動 으로 지금과 같은 方向으로 계속 추진 해 간다면 멀지 않은 장애 우리나라가 世界上位國 권내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.

우리 科學者로서 分明히 알아야 할 事實은 이 흥능 봉황산



科學團地內에 KIST, KAIS, ADD, KDI, KORSTIC 등 科學 기관 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며 아직 美國도 꿈을 꾸지 못했던 것인 바 韓國이 世界에서 最初로 시도한 科學者들의 요람을 朴大統領 의 英斷으로 가지게 된 點은 모든 科學人들이 감사해야 할 줄 안다.

이는 철순의 나이로 나의 황혼기를 마지막 장식하는 現時點 에서 지금 나의 所信을 피력한 것이며 나의 良心에서 우리나라 韓國 을 위한 솔직한 내 心情이다. 내 말 가운데에는 조금도 허위 허식이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. (35페이지에 계속)